

# 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ducer-oriented Collectiv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 In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

윤혜선(Yoon, Hye Seon)\*\* · 정연경(Chung, Yeon Kyoung)\*\*\*

1. 서론
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과 오픈아카이브
  - 1)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개념
  - 2)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
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록물의 분석
  - 1) 민통련의 특성
  - 2) 민통련 기록물의 특징
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단체 컬렉션 분류체계 개발
  - 1) 컬렉션 내용과 주제 분류
  - 2) 분류체계의 설계 및 적용
5. 결론

\* 본 논문은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sunny@kdemo.or.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투고일: 2020년 03월 23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4월 14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04월 19일

■ 기록학연구 64, 157-186,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4.157>

## 〈초록〉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미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 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 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민간기록물, 매뉴스크립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단체컬렉션, 생산자 중심 분류**

## 〈Abstract〉

Records management has focused largely on public records in south Korea with a relatively low progress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with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Act in 1999. This study set out to categorize the records of the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DRPM) and develop them into a group collection.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ecords content,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ert evaluation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reater efficiency in the search of records about the DRPM b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ystem to recategorize its records of various sources and enable their easy access and utilization in a digital archive. In addition, the basic structure of producer-oriented classification can be suggested as an example of the organization of a group collection.

**Keywords : Private records, Manuscripts,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DRPM), Group Collection, Producer-oriented classification**

## 1. 서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이 개정되면서 기록관리의 범위가 확대되고,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에 민간기록 수집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기록원에서 민간단체나 기관, 개인이 소장한 중요 기록물을 수집, 정보화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시민 기록 수집, 공동체 아카이브, 종교 단체 아카이브와 같은 민간의 다양한 기록화 작업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록관리는 제도적 미비, 재정적 문제 이외에도 본연적인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기관 내지 개인,

단체에서 연원된 다변적 성격의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은 계층화 및 구조화가 용이하지 않고 원 생산자가 기록을 생산할 당시의 질서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기록물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적다(이승휘, 2002). 따라서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있던 기록물 세트들을 정리, 기술하여 이질적인 기록물들을 보존소 전체의 체계 속에서 서로 연관 시켜주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Miller, 1959).

따라서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 하나의 단체컬렉션을 생성하고자 할 때 그 단체의 기록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생산했던 당시의 생산자(단체)를 컬렉션으로 기록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조직화 과정은 기록에 담긴 내용과 기록 생산자의 활동,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런 조직화 과정에서 분류 작업은 주제를 항목으로 배치하고 계층구조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각각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정연경,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즉,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있는 기록물 중 기증자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기록물을 재조직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개발하는 것이다. 민통련은 1985년에 민중, 민주, 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할 조직으로 형성되어 1989년 1월 전민련이 결성되고 해소되기까지 약 4년여에 걸쳐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체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민통련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분화된 운동권 세력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연합운동조직이면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결합하였던 통합 조직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통련은 잔존 기록이 많지 않고, 민주화운동 기록의 특성상 소장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도 찾기가 쉽지 않아 그 중요성만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통련 생산 맥락을 복원하고 기록을 재조직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통련 기록에 관심 있는 연구자, 관련자, 일반 시민 등이 민통련

기록들을 효율적으로 열람하고 연구하는 등 활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하여 소장한 민통련 기록물을 생산자 중심의 단체 컬렉션 분류체계로 개발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조직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기록에 적합한 분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 컬렉션의 연대별, 사건별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이라는 조직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통련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한 기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다. 사료관이 수집한 기록들은 모두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오픈아카이브 검색 도구에서 ‘생산자’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검색하여 노출되는 1,851건의 기록물 중 박물류 4건과 데이터 오류 2건을 제외한 문서사로 1,845건(간행물 포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기존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적용되었던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민통련의 활동과 크게 연관이 없는 주제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영역은 새롭게 추가하였다. 넷째, 이렇게 개발한 ‘민통련 단체 컬렉션’ 분류체계에 대하여 분류 전문가와 주제 전문가 총 4명으로부터 분류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받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보완한 후,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로는 민통련에 대한 연구와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살피고,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먼저 ‘민통련 기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하며, ‘민통련’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도 드물다.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윤성이(1999), 윤모린(2000), 정대화(2005), 정해구(2011)의 연구는 재야세력의 중심 조직이자 1980

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통련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해구(2011)는 민통련이 부문 운동과 지역 운동조직 전반을 포괄하였고, 재야세력의 중심 조직이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구심체로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분류체계의 선행연구로 설문원(2003)은 분산 보존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물의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 전명혁(2003)은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18개 범주의 기록물 관리군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후속 연구로 전명혁(2004)은 민주화운동단체 범주 분류 기준에 따른 18개 부문운동의 개념을 정리한 후, 부문운동별 기록물 범주화와 민주화운동기록물 분류지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 기관이 소장한 특정 기록물을 분석하여 분류한 연구로 정진임(2007), 김솔아(2013), 진용찬(2015), 김혜란(2016), 김유선(2018), 오정희, 정연경(2018), 서유림(2019)의 연구가 있는데 이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YMCA전국연맹 컬렉션을 연구한 정진임(2007),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기록을 분석한 진용찬(2015)과 5·18기록을 분석한 김혜란(2016)의 연구가 있다. 특히 정진임(2007)은 한국YMCA 전국연맹 컬렉션을 기능분류체계 기반으로 주제 분류와 유형분류방법을 접목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계층을 논리적으로 형성하였다.

기록물 분류표를 개발한 연구로 박정옥, 이명규(2013)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기능 분류, 주제 분류 등을 적용하고 기록물의 유형별, 생산적인 특성을 종합하여 분류표(안)을 제안하였다. 장희우(2014)는 목포문화원 향토기록물을 출처, 생산시기, 주제어, 유형 등으로 분류하는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매뉴스크립트 기록 분류와 정리 등에 대한 국외 연구로 Jimerson(2002)은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 작업은 기록의 무결성 및 접근 용이성을 목적으로 하며,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에게 기록을 조직하여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Meehan(2009)은 기록의 원질서는 맥락화하지 못하는 점

근 방식을 초래한다고 보고 기록을 하향식으로 접근하여 기록과 활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원질서는 순서의 맥락을 풀어내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 워크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종합하면, 민통련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재야 운동 단체이고, 민통련 단체만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체의 활동상과 시대적 의의, 한계 등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분류체계의 선행연구는 국외보다 국내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거자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던 기록물을 생산자 중심으로 재조직한 단체 컬렉션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체인 민통련의 기록물을 재조직하고 단체 컬렉션 구성을 위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를 증진시키고 단체 컬렉션 개발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과 오픈아카이브

### 1)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개념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란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외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인위적인 기록 컬렉션을 뜻한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수집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위적 컬렉션은 상호 연관있는 행위가 발생한 후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조직형 컬렉션은 특정한 개인이나 종교, 교육, 사회 단체 등과 같이 특정한 조직적 출처에서 생산된 자료를 뜻한다. 혼합형 컬렉션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진 단일한 기록물 아이템이나 기록물 아이템의 작은 그룹으로 구성된다

(Schellenberg, 1965). 본 연구의 대상인 민통련 컬렉션은 조직형 컬렉션에 해당하므로 민통련의 조직과 시기별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물을 재조직해서 컬렉션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분류의 역할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기록 접근성을 높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록물은 각각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기록물 덩어리 속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는 기록물 간의 유기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설문원, 2012). 전명혁(2003)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을 사례로 기록물 계층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쉘렌버그의 집합적 기록물군(collective archival group)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기록물군을 부문운동(정치, 노동, 농민, 인권, 통일평화, 시민, 청년, 학생, 문화예술, 교육학술, 종교, 환경, 여성, 보건의료, 언론출판, 연합, 빈민, 국제운동)으로 묶을 수 있는 관리그룹을 제안하였다. 즉, 최상위에 관리그룹이 위치하고, 기록의 기본계층은 사료군(group), 사료계열(series), 사료철(file), 사료건(item)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문별로 1차 분류하여 다양한 소장처에서 비롯된 무질서한 기록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통련의 조직과 활동 시기를 분석하고 단체 활동에 적합한 주제를 재정의하여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로 개발하였다.

## 2)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기록물을 기증자 중심으로 보존하고 있고, 물리적인 배치 또한 기증자를 사료군으로 생성하여 시리즈, 파일, 철, 아이টে็ม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기증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한 단체, 조직이라고 해도 같은 컬렉션으로 구성되지 않아 사전 지식이 없는 이용자는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 생산자 중심으로 사료군을 생성하면 이용자가 단체의 조직구성에 따른 활동, 시기별 활동, 주제별 기

록 등 민통련 관련 지식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사료관은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약 57만건의 수집 기록물의 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분류체계는 사진필름류로만 구성된 ‘사진 아카이브’, 음성영상류만 있는 ‘구술 아카이브’, 이야기 형태로 엮어낸 ‘사료 콘텐츠’, 그리고 문서류와 사진필름류의 주요 기록물인 ‘사료 컬렉션’으로 이루어져있다. ‘사료 컬렉션’과 ‘사진 아카이브’는 사건이나 시기(연대기)별로 우선 분류하고, ‘사진 아카이브’는 다시 주제로 분류한다. ‘구술 아카이브’는 주제별로 구성되고, 하위 분류로 구술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속해있다(표 1) 참조).

〈표 1〉 오픈아카이브 분류체계

구분	구성	유형
사료 컬렉션	- 주요 민주화운동: 7개의 사건을 중분류, 시기별 중요한 사건을 소분류로 구성 - 연대별 분류: 1960, 1970, 1980, 1990년대 연대별 중요 사건 제시	문서류, 사진필름류
사진 아카이브	-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이승만정권, 4·19혁명,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등 연대기별로 대-중-소로 사건이 점점 세분화 됨 - 대분류는 9개로 구성, 연대기별로 각각의 주제가 하위 분류구성	사진필름류
사료 콘텐츠	- 사료이야기는 월별, 오늘의 아카이브는 역사소개, 사료소개, 아카이브 소개 카테고리 구성 - 카드콘텐츠, 영상콘텐츠 등	제작 콘텐츠
구술 아카이브	- 4·19혁명, 한일협정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6.10민주항쟁 등 사건, 연대별 운동, 노동, 농민, 빈민, 인권, 여성, 재야, 해외민주인사 등 13개 분류로 구성, 하위로 구술자(인물) 구성	음성영상류

‘사료 컬렉션’에서 민통련 기록은 연대별 > 1980년대 >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결성’과 같이 대-중-소로 분류되는데, 소분류에 해당되는 사건이나 단체는 별도의 하위 분류 없이 기록이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민통련 단체

컬렉션 구성을 통한 분류체계 개발은 기록물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기록 열람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록물의 분석

#### 1) 민통련의 특성

##### (1) 연혁

민통련 창립 이전 1980년대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유혈로 진압한 후,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폭압 정치와 공포 정치를 일삼았다. 그러나 1983년 2월부터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정치인, 학생, 교수 등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해금, 특사, 복학, 복직 등의 유화조치는 결과적으로 민족민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민주화운동의 주요 세력은 당시 청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83년 9월 30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을 창립하여 최초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운동단체를 출범시켰다. 이후 농민, 노동, 청년, 종교, 문화 등 각 부문운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속출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운동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층운동의 강화와 조직운동을 강조하는 부문운동이 민중민주운동협의회(이하 민민협)로 통합되었고, 재야인사 중심으로 결집된 민주통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는 별도의 운동조직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조직과 단체에 기반하여 형성된 민민협은 국민적 인지도가 약하여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고,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진 국민회의는 실제적인 투쟁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진영은 민민협과 국민회의를 통합해야 할 필요

성을 느끼고 1985년 2·12총선 과정에서 다시 통합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고, 1985년 3월 29일 양 단체가 통합되어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민통련은 결성 이후 민주, 통일, 민중운동연합이라는 단체명처럼 반독재민주화·반외세자주화·민중생존권 투쟁을 전개하였고, 연대운동을 표방하고 등장한 후, 198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재야조직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2) 조직 분석

민통련은 1985년 3월, 군사독재 종식을 위해 범민주세력이 결집하여 민주, 통일, 민중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며 창립하였다. 창립 당시 민민협과 국민회의가 통합하면서 부문운동 단체와 재야민주인사들을 포함하였다. 초기 가맹단체들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가톨릭농민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 대한가톨릭학생총연맹,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통련 경북지부, 민통련 강원지부, 민통련 서울지부, 민통련 경남지부 등이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985년 9월 20일, 2차 통합대회 때 민청련,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 개신교단체 등 11개의 단체가 공개적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종교, 농민, 노동, 청년, 문화, 지방 부문, 지역별 24개의 단체들이 민통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통련 기록은 생산주체(조직)에 따라 본부, 지부 그리고 세부 위원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민통련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민통련 규약 제3장 조직 제10조(기구)에 따르면 민통련은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역운동협의회, 부문운동협의회, 사무처 그리고 정책기획실, 편집기획실, 대변인, 감사로 구성하며 고문과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운동협의회와 부문운동협의회는 조직 구조는 지역과 부문운동 단체를 포

팔하고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운동협의회는 본부에서의 결정이 지역에서 구체적 현실에 접목하여 실천하는 역할을 하였다(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창립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2005). 현재 잔존하는 민통련 기록인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제 4차 정기총회 보고서’(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056045)를 참고하여 구성한 민통련 지부 조직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민통련 지부 조직 구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부	서울	총회	감사 지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의장단 민주통일시민학교(이사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책교육실	
		사무처	총무국
			조직국
			문화선전국
			교무국 교육국
		지역위원회	동부지역위원회
			서부지역위원회
	남부지역위원회		
	북부지역위원회		
	직장인활동위원회		
	기타 위원회	조직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인권위원회	
		평가소위원회	
		도시빈민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민족학교			
경기	남부지역위원회		
	북부지역위원회		
경남			
경북			
강원			

본 연구에서 민통련 생산 기록은 다양한 소장처에서 수집된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조직 전체를 복원하기 어렵고, 기록물을 작성할 때 조직별로 구분 짓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모든 기록물을 조직에 매칭하기 어렵다. 특히 경남, 경북, 강원지부의 하위 조직 구성을 알 수 없어 추후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별 분류체계를 통해 전국적인 연합조직이었던 민통련의 활동을 본부와 지부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인권, 노동 등 부문 활동으로 나누었다. 또한 의장단의 대표적인 활동이나 민주헌법쟁취위원회 등 민통련이 전개한 특정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 2) 민통련 기록물의 특징

### (1) 기증자 분석

1980년대에 민통련과 함께 활동하거나 관계를 맺었던 다양한 기관, 단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기증한 민통련 기록물은 총 1,321건이다(〈표 3〉 참조). 전체 민통련 기록의 70%가 단체로부터 기증되었고, 그 중 4개 단체가 전체 민통련 기록의 80% 이상을 기증했다. 민통련 자료를 사료관에 기증한 개인은 총 57명으로, 524건의 기록물이다. 이처럼 1,321곳의 기관이나 단체, 57명의 개인 기증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만큼 기록의 정리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통련 단체 컬렉션 및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 청주, 울산, 전북 등 다양한 지역과 기독교, 가톨릭, 여성, 계승사업회 등 각계 부문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민통련의 광범위한 활동범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활동분야를 구분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민통련 자료 기증자(단체)

기증자(단체)	기록물 수	비율 (%)	기증자(단체)	기록물 수	비율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567	42.92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7	0.5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14	16.20	역사문제연구소	5	0.38
서울민주시민연합	191	14.46	민주화운동역사순회전시회원주지역추진위원회	5	0.38
한국가톨릭농민회	121	9.16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2	0.15
영등포산업선교회	40	3.03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	0.15
기쁨과희망시목연구원	32	2.42	전북여성단체연합	2	0.15
5·18 기념재단	29	2.2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	0.08
(재)전태일 재단	22	1.67	대구가톨릭노동사목	1	0.0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8	1.36	한국여성단체연합	1	0.08
청주도시산업선교회	15	1.14	역사학연구소	1	0.08
한국도시연구소	15	1.14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	0.08
울산민주시민회	14	1.06	민주항쟁 안양군포의왕 기념사업회	1	0.08
한국YMCA전국연맹	13	0.98	통일맞이	1	0.08
총 계				1,321	100

(2) 유형 분석

민통련의 기록을 문서류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민통련 문서류 유형

종류	구분	수량	비율(%)
문서류	단행본	3	0.16
	간행물	274	14.85
	문서	1,568	84.99
	총 합	1,845	100.00

민통련이 운동 단체인만큼 주로 성명서와 안내문, 단체 행정문서 등 문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간행물의 비중도 약 15%나 되는데, 당시 제도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운동 단체들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지 등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간행물은 주로 민통련 본부에서 발행한 기관지 〈민중의 소리〉가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민중의 소리〉는 민민협이 1984년 10월 17일

창간호를 낸 후 민통련으로 통합되면서 꾸준히 발행되었다(6월민주항쟁 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민통련 생산 기록물은 주로 문서의 형태이지만, 기록물의 유형분석은 문서류의 형태사항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 (3) 생산 시기 분석

민통련은 조직의 창립과 해체가 분명하고 시기에 따라서 활동 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연도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민통련 기록은 생산 일자를 기반으로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에서 활동 범위와 양상에 따라 4개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창립이전/제1시기/제2시기/제3시기/제4시기/해체이후/미상 등 7개 시기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오픈아카이브에서 생산자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인 기록 중 생산일자가 [YYYY.MM.DD]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대상으로 시기를 분류하였고, 연도, 월, 일 중 하나라도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민통련 창립이전 기록과 해체 이후 기록은 연도와 월까지만 표기되어 있어도 창립이전 혹은 해체 이후로 포함시켰다.

먼저 창립이전 자료는 민중민주운동협의회가 창간했던 기관지 <민중의 소리>와 민주통일국민회의에서 출간한 단행본 <민주통일> 등이 남아있는데 두 단체가 통합하면서 민통련 생산기록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시기는 민통련의 창립과 초창기 활동이다. 민통련은 1985년 3월 29일 민민협과 국민회의가 통합한 단체로 관련 성명서, 규약 등이 있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민청련과 개신교가 불참하였고 지방가맹단체들도 역량을 강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초기 활동은 주로 성명서 발표와 농성투쟁의 형태로 전개하였고, 관련 기록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방미에 대한 성명 발표와 대우자동차 구속 노동자 석방, 소 값 피해보상 및 농축산물 수입반대 성명서, 4·19, 7·4, 8·15 등 기념일예의 성명 발표, 5·18민주화 5주년투쟁, 9

월초 양심수석방요구농성 등이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또한 이외에 학원안정법에 대한 철폐요구를 담은 성명서와 확대 개편대회 관련 기록이 있다.

제2시기는 개헌투쟁시기이다. 1985년 하반기에는 군사 정권의 민주세력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이 강화되어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탄압저지투쟁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구속 및 고문 수사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해서 6월 항쟁을 촉발한 박종철 관련 투쟁 기록과 개헌서명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의 서울 상계동, 사당동 등 강제철거에 대한 성명서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각 부문, 지역별 24개 단체들과 ‘외채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정권의 대외종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제3시기는 대통령선거 투쟁시기이다. 민통련은 6월 항쟁 이후 7~9월 노동자대투쟁 연대투쟁을 기반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중공업 노동탄압 등 성명서 발표 활동을 펼쳤다. 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1987년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민통련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을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김대중 지지활동을 벌였다. 이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을 벌였다. 당시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은 선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12월 23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후 재야 단체 연합이었던 민통련은 대선에의 직접적인 개입과 투쟁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1988년 1월 중앙위원 전원을 인책하고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는 후보검증 관련 기록, 특정 후보지지, 선거무효 투쟁, 의장의 단식농성 등 관련 기록이 있다.

제4시기는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이하 민운연)의 건설 시기이다. 민통련은 대선 특정 후보 단일화 지지에 실패한 후 총선투쟁에 임했고 이와 관련된 총선투쟁위원회 회의 기록이 있다. 4·19혁명 28주기, 5·18민주화운동 8주기를 앞두고 추모행사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탄압이 거세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두환 정권 규탄 및 공동올림픽 개최 투쟁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민운연 건설 논의는 전국민중운동연합준비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단일한 구심체 형성에 대한 요구는 민주화운동권의 대세를 이루었고, 결국 1989년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창립되면서 민통련은 약 4년 만에 해체하게 되었다.

해체 이후의 시기는 민통련 본부가 해체된 후에도 남아있던 서울지부 민통련의 자료가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민통련 기록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민통련 기록 시기 분류

구분		내용	개수	비율(%)
창립이전		창립 준비 활동 등	12	1
활동 시기	제1시기 (1985.03~1985.09)	민통련의 창립과 초창기 활동	182	10
	제2시기 (1985.10~1987.05)	개헌투쟁시기	463	25
	제3시기 (1987.06~1988.02)	대통령 선거 투쟁시기	392	21
	제4시기 (1988.03~1989.01)	민통련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의 건설	343	19
해체 이후(1989.02~)		서울민통련 생산 기록, 기타 문서	114	6
미상		...	339	18
합계			1,845	1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민통련 기록물의 특징을 분석하여 얻

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부문별 다양한 기증자를 통해 민통련의 광범위한 활동범위를 알 수 있으며, 단체의 활동에 대한 또 다른 범주가 필요하다. 둘째, 민통련 생산 기록물은 주로 문서이지만, 간행물, 단행본 등의 유형 구분은 문서류의 형태사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민통련 활동 시기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는 민통련의 시기별 활동을 살피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단체 컬렉션 분류체계 개발

##### 1) 컬렉션 내용과 주제 분류

민통련 생산 기록을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기나 유형 분류는 구분이 용이하지만 기록물의 내용은 기증자, 유형 또는 제목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록물 내용의 분석을 통해 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검색 편의를 증대할 수 있다. 컬렉션의 내용과 주제 분류는 민주화운동에 관한 전명혁(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민통련의 활동 영역에 맞게 조정하였다.

전명혁(2004)은 사료관의 기록물을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부문으로 범주화하여 정치, 노동, 농민, 인권, 통일평화, 시민, 청년, 학생, 문화예술, 교육학술, 종교, 환경, 여성, 보건의료, 언론출판, 연합, 빈민, 국제운동 등 18개로 주제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와 개념은 전체 민주화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민통련 기록을 분석하여 단체 활동에 맞게 적용하였다. 민통련의 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청년운동, 환경운동, 보건의료운동, 문화예술운동, 종교운동 등 5개의 범주는 제외하였고, 2개 영역(기념/추모, 기타)을 추가하여 15개의 범주로 변형하였다(〈표 6〉 참조).

(표 6) 민통련 기록 주제 분류(안)

연번	범주	관련 내용	비고
1	노동 (LA)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탄압, 신하일전기 부당해고, 경동탄광 파업투쟁, 울산현대중공업 등 정권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한 행위에 대하여 알리거나 운동을 지지하는 행위	
2	정치 (PL)*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위, 외교정책, 노동 탄압 등에 대하여 성명서, 공개 질의 등으로 대응하는 행위	코드 변경
3	농민 (AG)*	소값 폭락 피해 보상, 양담배 거부, 최저생계비 보장 등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행위	재정의
4	빈민 (PR)*	목동, 사당동, 상계동 등 도시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로 인한 생존권 파괴 반대운동, 강제철거로 인한 사망 추모 등	코드 변경
5	학생 (ST)	학원안정법 반대, 신민당 학생 농성, 학생열사의 분신 등 학생 주체의 활동에 대한 지지,	
6	평화통일 (UP)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6.10남북학생회담, 민주통일시민학교 등 통일 관련 논의, 주장 등	
7	시민 (CV)*	주로 민통련에서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주통일 시민학교, 민주시민교실 등 강좌 관련 자료	재정의 코드변경
8	여성 (WM)*	민주쟁취운동 등 여성의 투표를 지지하는 자료, 3.8여성대회, 여성 교양강좌 등	재정의 코드변경
9	인권 (HU)	경찰의 고문, 불법적 연행, 감금, 노동 탄압, 양심수 문제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자료	
10	언론·출판 (SP)*	정권이 언론에 가하는 탄압, 출판의 자유 말살 등에 항의하고, 언론인들의 방송 민주화투쟁지지 등	재정의
11	교육·학술 (ES)	교육민주화쟁취, 교직원노조 결성지지, 민주통일시민학교, 민족학교 등 관련 자료	
12	연합 (UN)	어떤 사안에 대하여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경우	
13	해외 (FR)*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니카소네, 일본 황태자 방한 반대 등 활동	재정의 코드변경
14	기념/추모 (ME)**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기념행사 또는 열사, 희생자 추모하는 활동 등	신규 추가
15	기타 (ET)**	안내문, 회의록, 공지사항 등	신규 추가

\* 표시는 재정의하거나 코드 변경      \*\* 표시는 추가된 범주

또한 전명혁의 범주에서 정의내린 내용과 다른 농민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 언론출판운동, 국제운동 등은 일부 재정의하였다. 전명혁이 구분한 ‘여

성운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남성지배에 의해 자행되는 억압적 측면과 폭력성, 가부장적 체제, 노동분업 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해체 지향을 뜻하지만, 민통련 기록에서 보이는 '여성' 기록은 대통령 선거 때 여성의 투표권을 강조하거나 여성 교양강좌에 대한 자료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의 운동 양상을 띤다. '시민운동'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사회운동에서 시민운동의 활동이 아니라 민통련에서 시민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 관련 기록 등이 그 대상이다. '농(어)민운동'은 실질적으로 어민 관련 활동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보장, 소 값 폭락 피해 보상 등 활동을 전개했던 '농민'으로 한정하였고, '해외'도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해외 활동보다는 민통련이 외교적으로 활동을 한 기록물로 재정의하여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기념사업, 추모기록은 따로 구분지어 '기념/추모'로 추가하였고, 공지사항, 회의록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 2) 분류체계의 설계 및 적용

민통련 단체컬렉션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민통련 기록물 정리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및 접근 용이성을 높인다. 둘째, 분류 대상은 민통련이 생산한 문서 기록물에 한정한다. 셋째, 1차 분류는 기록의 생산자인 '민통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2차 분류는 생산시기, 3차 분류는 주제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형 분류 기호를 부여한다.

### (1) 분류체계 개발 절차

민통련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민통련의 출처별 분류체계로 본래의 조직을 적용하였다. 민통련 본부, 지역조직, 산하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 형태를 출처로 컬렉션을 구성하였고, 계층적인 기술

정보를 마련하여 세부적인 기록 생산자 정보를 확인하였다. 둘째, 민통련 기록물 생산시기에 따라 창립이전, 민통련의 창립과 초창기 활동, 개헌투쟁시기, 대통령선거 투쟁시기, 민통련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의 건설, 해체 이후, 미상 등 7개 시기로 분류하였다. 셋째, 민통련 단체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 분류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유형분류를 일반문서, 간행물, 단행본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넷째,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고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은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나 기록관리교육원 교수로서 기록물 분류 강의나 관련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전문가 2명과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강의하는 연구자 2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분류체계의 설계 원칙과 조직 분류, 시기 분류, 주제 분류, 유형 분류를 적용한 민통련 기록물 분류표 적용 사례, 연구 내용 요약본과 평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하였다.

## (2) 분류체계의 구성과 평가

분류기준의 1차 작업은 출처를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민통련 본부-지부로 나누고, 세부적인 조직 구성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기본적인 분류는 본부/지부에 두고, 실제로 기록물이 생산된 곳만 추가적으로 위원회 등의 활동을 기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부나 지부 명시 없이 생산자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인 경우에는 본부로 구분하였다. 본부(Headquarters)와 지부(Branch)는 영문 대문자 ‘HE’, ‘BR’ 두 글자로 나타내었고, 지역 구분은 본부 ‘00’,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순으로 ‘01’, ‘02’, ‘03’, ‘04’, ‘05’로 숫자를 부여하였다. 중분류, 소분류도 각 분류별로 두 개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분류 전문가들은 조직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고 지부가 본부의 하위 조직으로서 기능한다면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분류기호의 자릿수도 통일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제 전문가들은 분류체계가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지부-서울, 기타 위원회의 명칭과 위계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부와 지부의 구분을 없애고, 본부, 서울, 경남, 경북, 경기 등으로 나누어 영문 기호를 부여하였다. 조직 분류 기호도 중분류와 소분류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소분류로 나뉘지지 않는 기록에도 기호를 부여하여 모든 기록의 기호는 'AA-000' 형태로 분류체계를 수정하였다. 또한 기록물 정리 과정에서 서울 민통련 조직에 일부 누락된 조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 <표 7>이다.

<표 7> 민통련 컬렉션의 조직 분류 기호

지역(기호)	조직(기호)	세부 조직(기호)	분류기호*
본부(HE)	대의원총회(1)		HE-100
	중앙위원회(2)	의장단(01)	HE-201
	중앙집행위원회(3)	사무처(01)	HE-301
		정책기획실(02)	HE-302
		총무국(03)	HE-303
		편집기획실(04)	HE-304
		홍보국(05)	HE-305
	지역운동협의회(4)		HE-400
	부문운동협의회(5)	노동위원회(01)	HE-501
		여성위원회(02)	HE-502
	특별위원회(6)	민주헌법쟁취위원회(01)	HE-601
		인권위원회(02)	HE-602
서울(SE)	정책교육실(1)*		SE-100
	사무국(2)*	교육국(01)*	SE-201
	지역활동위원회(3)	남부지역위원회(01)	SE-301
		동부지역위원회(02)	SE-302
		북부지역위원회(03)	SE-303
		서부지역위원회(04)	SE-304
	직장인활동위원회(4)		SE-400
	기타 위원회(5)	도시빈민위원회(01)	SE-501
		민족학교(02)	SE-502
		인권위원회(03)	SE-503
		조직통일위원회(04)	SE-504
		총회준비위원회(05)	SE-505
평가소위원회(06)		SE-606	
통일위원회(07)		SE-607	
특별위원회(08)		SE-608	

경기(GG)	남부지역위원회(1)	GG-100
	북부지역위원회(2)	GG-200
	경남(KN)	KN-000
	경북(KB)	KB-000
	강원(KW)	KW-000

\* 표시는 기록물 정리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추가한 조직과 분류기호

분류의 2차 작업은 생산시기에 따른 분류이다. 분류방식은 민통련이 기록을 생산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창립이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해체 이후,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활동 시기는 앞서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에서 구분한 시기를 참고하였고, 시기별 분류기호는 조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물 생산일이 포함된 시기의 시작 연월을 ‘YY.MM’의 형태로 나타났다. 민통련 창립이전과 해체 후의 기록은 활동시기의 기록이 아니므로, 창립이전(Before) ‘BF’, 해체이후(After) AF, 미상(Unknown)’은 ‘UK로 부여하였다.

시기 분류에 대한 주제 전문가의 평가는 민통련 활동시기 중 ‘6월 항쟁(1987.05.27.~1987.06.28.)시기’에 대하여 제2기 ‘개헌투쟁시기’로 변경을 제안하였다. 해당 시기는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활동 시기인데, 국본의 활동과 시민의 지지로 1987년 6월 29일 전두환과 신군부가 6·29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는데 기여했으므로, 제2기는 ‘개헌투쟁시기’로 하고 그 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분류 전문가는 부여한 시기 기호를 통해서 명확한 시기 구분이 불가하고 ‘BF’, ‘00.00’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것을 지적하여 한자리수의 기호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기존에 제시한 시기 구분은 기록물이 어떤 시기에 포함되는지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 시기에 따라서 제1기(Period) ‘P1’, 제2기 ‘P2’ 제3기 ‘P3’, 제4기 ‘P4’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

동시기를 바탕으로 상세 기호를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활동시기 기록의 경우 P1이나 P2나 P3나 P4 다음에 콜론 ':'를 붙이고 그 뒤에 연월 'YYMM'의 형태로, 예를 들면 P2:8706과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기 분류와 기호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 <표 8>이다.

<표 8> 민통련 컬렉션의 시기 분류 기호 개선

구분		분류 기호
창립이전(85.01~85.03.28)	창립 준비 활동	BF
활동 시기	제1기 (1985.03~1985.09) 민통련의 창립과 초창기 활동	P1*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제2기 (1985.10~1987.06)* 개헌투쟁시기(6월 항쟁 포함)*	P2*
		8510
		8511
		8512
		8601
		8602
		8603
	8604	
	8705	
	8706	
	제3기 (1987.07~1988.02) 대통령 선거투쟁 시기	P3*
		8707
		8708
8709		
8709		
8710		
8711		
8712		
P3*		
8801		
8802		

활동 시기	제4기 (1988.03~1989.01)	민통련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의 건설	P4*	8803
				8804
				8805
				8806
				8807
				8808
				8809
				8810
				8811
				8812
8901				
해체이후(1989.02~)		서울민통련 생산 기록, 기타 문서	AF	
미상			UK	

\* 표시는 변경된 시기 또는 분류기호

민통련 기록물의 3차 분류는 주제 분류로, ‘일반 문서’에 한정하였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간행물이나 단행본은 부여하지 않았다. 주제에 해당하는 범주는 전명혁(2004)의 범주를 15개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각 범주의 영문 대문자 두 자리로 분류기호를 나타냈는데, 기존 코드의 일부는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정치와 빈민 기호가 동일한 기호(PO)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다르게 구분하였고, 알파벳 O와 I는 숫자 0과 1과 유사해 혼동될 여지가 있어 다른 알파벳 약자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즉, 정치(Politics) ‘PL’, 빈민(Poor) ‘PR’, 시민(Civil) ‘CV’, 여성(Women) ‘WM’, 해외(Foreign) ‘FR’과 같다. 또한 새롭게 추가한 기념, 추모(Memorial)영역은 ‘ME’, 기타(ET cetera)는 ‘ET’로 부여하였다. 기록물 분류시에 하나의 기록물은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범주를 모두 각각 분류하고 합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테면 민통련 기록 중 ‘민주쟁취 여성힘으로’(등록번호 0086683)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때 여성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여성(WM), 정치(PL) 두

가지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두 개 이상의 주제 분류에 대해서 분류 전문가는 보관을 위한 분류기호가 하나로 정해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민통련 분류체계는 디지털아카이브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제를 하나에만 배당하지 않았다.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부여할 때는 각 기호 사이에 '/'를 넣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제 전문가는 다른 단체와 통합되는 것을 뜻하는 '연합'이라는 용어 대신에 실제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책임지는 행위에 해당되는 '연대(Band Together)'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표 9>와 같다.

<표 9> 민통련 컬렉션의 주제 분류 기호 개선

범주	분류기호	범주	분류 기호	범주	분류기호
교육·학술	ES	시민	CV	인권	HU
기념/추모	ME	언론 출판	SP	정치	PL
노동	LA	여성	WM	평화 통일	UP
농민	AG	연대*	BT*	학생	ST
빈민	PR	외교	FR	기타	ET

\* 표시는 수정한 분류기호

또한 주제 전문가는 민통련 단체 고유 약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서 민통련에 해당하는 단체명 코드를 'the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 으로 'DRPM'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분류는 오픈아카이브에서 분류하는 단행본, 간행물, 일반 문서 3가지로 나누었다. 유형별 분류 기호는 단행본은 '단', 간행물은 '간', 일반 문서는 '일'로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에 서비스 중인 민통련 기록물 4건을 분류표에 적용하였는데 <표 10>과 같다.

〈표 10〉 민통련 컬렉션의 분류표 적용 사례

기록 정보			분류표					
등록번호	제목	생산일자	단체	조직	시기	주제	유형	분류기호
00129002	레이건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985.05.10	DRPM	HE-201	P1:8505	PL/FR	일	DRPM-HE-201-P1:8505-PL/FR-일
00021921	경북의 소리 제11호	1987.05.10	DRPM	KW-000	P2:8705		간	DRPM-KW-000-P2:8705-간
00854638	민주쟁취 여성힘으로	1987.12.07	DRPM	HE-502	P3:8712	WM/PL	일	DRPM-HE-502-P3:8712-WM/PL-일
00397194	'91 통일한마당-조국, 그 하나됨을 위하여 [팸플렛]	1991.08.31	DRPM	SE-000	AF	UP/PL	일	DRPM-SE-000-AF-UP/PL-일

## 5. 결론

공공영역에서 생산하는 기록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 사건 등을 기록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시민 기록, 공동체 아카이브, 종교 단체 아카이브 등 다양한 아카이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기록을 소장한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매뉴스크립트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다양한 소장처로부터 수집한 사료를 정리, 등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에 원문 사료 열람, 키워드를 통한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료 컬렉션, 사진 아카이브 등의 구분을 통하여 연대별, 사건별로 사료를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법은 큰 사건이나 주제별로 대분류-중분류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은 이러한 분류체계 안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다양한 정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소장처로부터 수집된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중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생산한 기록물로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였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은 1985년 3월부터 1989년 1월까지 활동한 단체로 기록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고 해체되어, 현재는 다양한 개인/단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한 자료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존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단체로서, 기록 정리, 서비스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조직화, 분류체계(안)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민통련의 조직구조, 구체적인 활동, 시기, 유형 등을 반영하는 분류 체계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해당 컬렉션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켜 보다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매뉴스크립트기관에서 분류를 통한 다양한 컬렉션 구성의 사례로서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소장한 모든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록정보콘텐츠로서의 분류체계 방법론에 국한된다. 후속연구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생산자의 단체별 컬렉션을 구축한다면 조직과 활동의 측면에서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솔아. 2013. 『사찰린 한인 관련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국가기록원 컬렉션 수집 및 분류·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유선.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혜란. 2016.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항목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Ⅰ) 자료편.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창립20주년기념생사위원회. 2005. 『민·통·련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창립 20주년』. 서울: 민통련창립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 박정옥, 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5-42.
- 서유림. 2019. 『제주 4·3 기록 연구 : 제주4·3평화재단 소장기록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설문원. 2003.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457-488.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 12(3), 203-232.
- 오정희, 정연경. 2018. 독립 운동 컬렉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공훈전자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99-124.
- 윤모린. 2000.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운동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윤성이. 1999.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정치기회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4), 111-128.
- 이승희. 2002. 『민주화운동 사료 기술규칙 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장희우. 2014. 『지방문화원 향토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목포문화원 향토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전명혁. 2003. 매뉴스크립(Manuscripts)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13(-), 189-204.
- 전명혁. 2004.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범주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史林』, 21(-), 69-90.
- 정대화. 2005. 민주화 과정에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8(-), 213-241.
- 정연경. 2017. 『지식정보분류론』.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정진임. 2007. 『매뉴스크립트 분류체계 개발방안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 진용찬. 2015.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잔존기록에 대한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한국사사전편찬회(편). 2005. 한국근현대사사전. 서울: 가람기획.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2』. 서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980년대 한국사회 연구』. 서울: 백산서당.
- Jimerson, R.C. 2002. Arrangement techniqu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OCLC Systems & Services; Bradford』, 18(2), 75.
- Meehan, Jennifer. 2009. Rethinking Original Order and Personal Records. 『Archivaria』, 70, 27-44.
- Miller, F. 1959.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조경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R., 1965.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검색일자: 2019.4.17. <http://archives.kdemo.or.kr/main>